

수출입은행, 10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 올해 한국계 발행물 중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동수)은 10월 14일 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조건은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에 1.60%의 가산금리를 더한 4.075% 수준이다.
 - 이번 채권이 만기가 10년 3개월인 장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올해 한국계 글로벌본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에 성공한 것으로, 벤치마크 차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면밀한 시장상황 검토를 통해 만기수익률 측면에서도 10년 만기물 중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본드를 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수출입은행은 금번 글로벌본드 발행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원전수출, 해외자원개발 등 우리기업의 대규모 중장기 해외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한국물 발행이 5.5~6년 만기에 집중되는 쏠림현상* 해소에도 일조하였다.
- * '10년 한국계 발행 글로벌본드 중 중 5~6년 만기가 89% 차지 (본건제외)

<주요 발행 조건>

발행 형태	글로벌본드(미 달러 표시)
만기	10년 3개월*
금액	10억 달러
금리	4.075%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1.60% 수준)
주 간 사	Barclays, BofA-Merrill Lynch, HSBC, JP Morgan, Morgan Stanley, 우리투자증권

* 기존 차입금의 상환 스케줄을 고려, 통상 10년보다 3개월 긴 만기를 선택

-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 10년 만기 글로벌본드 발행에 이어 다시 한번 10년 이상 장기물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전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한국물의 투자자 지평과 차입 만기구조를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 투자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미국 48%, 유럽 11%, 아시아 41%이며, 투자자 구성은 자산운용사 53%, 보험사 16%, 프라이빗뱅크 12%, 상업은행 10%, 중앙은행 9%로 주요 대형 투자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 한편, 수출입은행은 올해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에서 다양한 현지통화로 채권을 발행, 총 **28억 달러**를 확보하는 등 틈새시장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	국제금융부 외화조달팀장 윤희성 (☎02-3779-6442)
의	홍보실 공보팀장 채상진 (☎02-3779-6065)